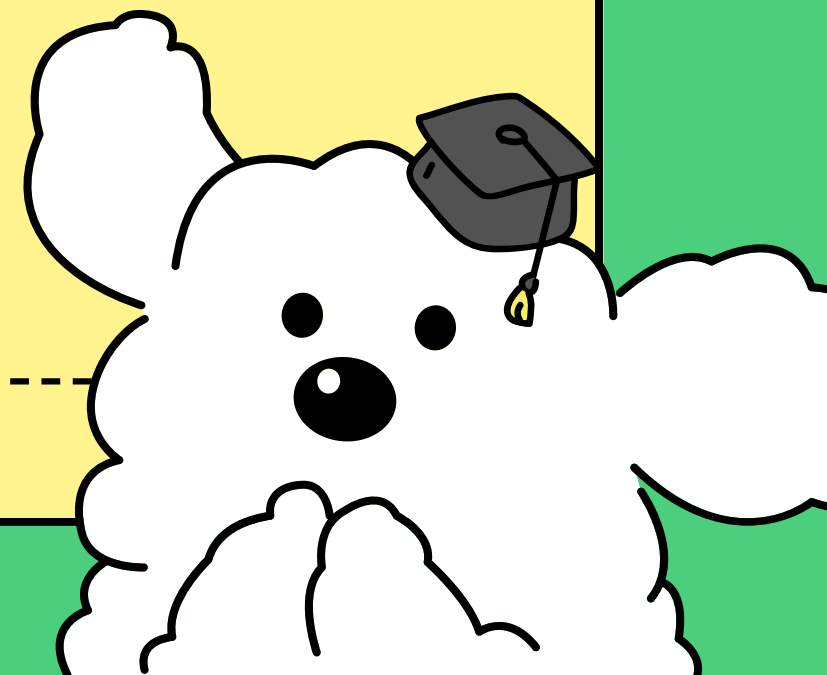


글빛나라의 성장 이야기

2026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1기 글빛나라 결과 보고서



글빛나래 학습공동체 소개



2026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1기

글빛나래

- 의미: 글을 읽으며 배우는 지혜로 꿈의 날개를 펼쳐보자
- 관심분야: 유아 문해력 교육
- 활동기간: 2026년 6월~2026년 9월
- 구성원: 교사 유0진(버들쌤), 강0라(퍼플쌤), 노0영(예쏘쌤, 유0정(룸룸쌤), 이0희(꽃송이쌤)



1. 학습공동체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질문에서 실천으로, 글빛나라의 성장 과정

여섯 가지 탐구 질문

1

문해력 vs 문식성

유아교육에서 어떤 용어와 관점이 적절한가

2

발현적 문해와 관습적 문해

두 개념의 관계와 현장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까

3

다문화·이중언어 유아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문해력과 이중언어 자원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까



4

체계적 교육과정

연간, 월간 계획 속에 문해 경험을 어떻게 녹일까

5

관찰, 평가 방법

성장을 알아차리는 행동 지표와 기록 방법은 무엇
인가?

6

디지털 매체 활용

흥미를 높이는 도구인가,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인가

실행 방향: 이론 정리 → 사례 공유 → 현장 적용 → 다시 성찰

여섯 가지 탐구 질문

1

문해력 vs 문식성

유아교육에서 어떤 용어와 관점이 적절한가

미션 완료

2

발현적 문해와 관습적 문해

두 개념의 관계와 현장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까

미션 완료

3

다문화·이중언어 유아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문해력과 이중언어 자원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까

미션 완료



4

체계적 교육과정

연간, 월간 계획 속에 문해 경험을 어떻게 녹일까

미션 완료

5

관찰, 평가 방법

성장을 알아차리는 행동 지표와 기록 방법은 무엇인가?

미션 완료

6

디지털 매체 활용

흥미를 높이는 도구인가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인가

미션 완료

실행 방향: 이론 정리 → 사례 공유 → 현장 적용 → 다시 성찰

1회차 – 멘토링 주제 정하기

함께 알아보고 싶은 점

문해력 vs 문식성

유아교육에서 어떤 용어와
관점이 적절한가

발현적 문해와 관습적 문해

두 개념의 관계와 현장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까

관찰·평가 방법

성장을 알아차리는
행동 지표와 기록 방법은 무엇인가

다문화·이중언어 유아

한국어 문해력과 이중언어
지원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까

체계적 교육과정

연간·월간 계획 속에
문해 경험을 어떻게 녹일까

디지털 매체 활용

흥미를 높이는 도구인가,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인가

2회차 - 우리반 문해 활동 사례 분석

우리반 문해 활동 살펴보기

주말지낸 이야기, 언어활동지 활용, 글자 찾기, 동시 읊기, AI를 활용하여 단어 설명하기, 글자낚시놀이

함께 공부한 점

문해력과 문식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아의 말*글*그림*상징
경험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발달한다.

유아의 발현적 문해 행동을 읽어내고 균형적
접근법으로 의미있는 문해 경험을 확장해가는
것이
유아 문해력 교육의 핵심이다

3회차 - 유아 문해력 지원 방법 탐구

01 반복훈련식 지도의 한계

글자 모양만 외우는 기계적 해독

동일한 학습지로 인한 유아의
흥미 상실과 좌절감

의미 이해가 결여된 겉보기식
문해의 위험성

02 두 접근의 균형적 접근

발현적 문해(풍부한 의미 경험)와
관습적 문해(직접적 해독)의
상호 보완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필요한 자발적 흥미를 끌어내는 것

03 의미 있는 놀이 속 문해

문식성 환경: 가랜드, 이름표 퍼즐
제공 (환경적 노출)

목적 있는 쓰기: 색칠도안 희망 신청서
작성 (필요에 의한 쓰기)

일상의 연결: 점심 메뉴판을 통한
단어 의미 유추 (텍스트와 실제 세계
매칭)

KEY MESSAGE 단어와 일상을 연결하며 진짜 문해력이 싹튼다.

자발적인 흥미야말로 한글 발달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

4회차 - 다문화, 이중언어 유아의 문해력 지원

01 교실 속 언어 장벽

유아 간 한국어 이해 수준의 큰 편차

설명 중심의 활동의 역효과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습득 부담감과
소외감 우려

02 이중언어 자원의 적극 활용

강제적인 한국어 선행학습 지양

L1(모국어)과 L2(한국어)를 모두
실제 의사소통의 도구로 존중

관계 맺기의 필요성이 언어 습득을
촉진한다는 인식

03 다중언어 놀이 및 일상 루틴

음악과 동작 : 이중언어 동요
가사 개사 및 율동 (반복 노출)

가정연계 : '나를 소개해요', '장난감
이야기' 다국어 발표 (자신감 형성)

일상 루틴: '기다려요', '같이 해요' 등
상황에 맞는 반복 표현 지속 사용

KEY MESSAGE 유아기 외국어 교육은 선행학습이 아닌

놀이와 일상 속 의사소통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

5회차 - 유아 문해력 관점에서 바라본 영어교육

01 반복·암기식 영어교육의 한계

단어·알파벳·파닉스 등 반복암기 학습은
유아의 **흥미와 생활 맥락**에서 분리될 수
있음

주 1회·30분 정도의 특성화수업으로
영어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확장하기 어려움

학습 성과에 초점을 두면 영어를 **소통의**
도구가 아닌 '공부'로 인식 하거나 부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음

02 놀이와 일상 속 자연스러운 영어

유아기 영어는 '얼마나 가르칠 것인가'보다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

놀이·노래·그림책·신체활동·역할놀이 등을
통해 **듣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경험**

과일 가게 놀이처럼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면, 배운 표현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03 의미 있는 소통으로 이어지는 문해력

영어를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는 도구로
경험하도록 함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반복·확장**하여 짧은
단어, 표현이 문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흥미·발달 수준·언어적 배경을 존중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할 기회 제공

KEY MESSAGE 유아영어교육은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놀이와 일상 속 '의미있게' 소통하며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해력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미를 나누는 경험에서 자란다.

6회차 -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01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경험

그림책의 그림과 글을 함께
탐색하며 내용 예측, 상상,
말하기 경험 확장

반복 문장과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해 읽기의 즐거움과 언어
표현 경험

02 그림책과 놀이의 연결

그림책의 내용과 언어를 다양한
놀이로 확장

그림책 속 이야기와 표현을 활용해
만들기·역할놀이·신체놀이·
언어놀이로 연결

03 일상 속 문해력 확장

문해를 별도의 학습으로 분리하지
않고 놀이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통합하며
유아가 문해를 즐겁게 경험하도록
지원

KEY MESSAGE 그림책은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놀이와 일상으로 이어지는 문해력의 출발점이다.

그림책 속 글·소리·이야기를 놀이와 연결할 때 유아의 문해 경험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7회차 - 전문가 멘토링 내용 및 멘토링을 통한 배움

핵심 관점

유아 문해력,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맥락

발현적 문해 ↔ 관습적 문해를 고정된 단계로 보지 않고, 유아의 동기·경험·환경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지원

01 발달을 '역전'으로 보지 않기

글자를 일찍 아는 유아는
발달적 우위, 내적 동기,
가정의 풍부한 언어환경, 표현의
가시성 등 복합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02 두 접근의 장점을 통합하기

해독 규칙을 직접 가르치는 관습적
접근과 풍부한 언어·의미 경험을
강조하는 발현적 접근 중
하나만 택하기보다
균형 있게 연결하기

03 교사는 '조력자'가 되기

이론적 순서보다 '이 유아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민감하게
읽고, 놀이 속 문해 경험과 필요한
문자 경험을 조절하기

KEY MESSAGE “발현적 문해 → 관습적 문해”라는 단선적 경로보다, 개별 유아의 동기·경험·환경을 함께 본다.

문해력 목표를 먼저 정하기보다 유아의 현재 관심과 필요를 알아채는 것이 출발점

7회차 - 전문가 멘토링 내용 및 멘토링을 통한 배움

현장 적용

교실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최소한을 준비한다

다문화·이중언어 환경과 초등 전이를 모두 고려한 실천 원칙

A. 다문화·이중언어 문해 지원

1. 두 언어 경험은 언어 전환·어휘·구문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어떤 언어를 얼마나'보다 유아에게 지금 필요한 언어적 지원이 무엇인지 살피기
3. L1(모국어)·L2(제2언어)가 모두 실제 소통에 쓰이는 자연스러운 환경 만들기
4. 그림책은 1:1 번역·매칭보다 흥미와 상호작용 중심으로 유연하게 제공
5. 교사가 모든 언어에 능숙할 필요는 없지만 유아의 언어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중요

B. 초등 전이·평가의 기준

‘한글 선행’이 아니라
수업을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초 문해력

듣기·이해

어휘

음운인식

읽기·쓰기

소근육

놀이와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기르고, 문자에 대한 관심과 준비 경험을 갖추도록 지원

평가도 결과보다 과정과 변화 관찰 중심

현장 질문: “이 활동이 아이에게 의미 있는 소통과 문해 경험이 되는가?”

2. 학습공동체를 통한 배움

학습공동체를 통한 우리의 변화와 배움

교사의 생각이나 지원 방식의 변화

1. 글빛나래 활동을 통해 나의 문해력 교육에서 달라진 한 가지는?



교사의 생각이나 지원 방식의 변화

퍼플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유아 문식성 발달에 관한 이론들을 공부했었는데, 합격과 동시에 싹 잊어버렸었지요. 이번 전학공을 통해 다시 한번 이론들을 살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유아들에게 언어교육을 할 때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언어교육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언어활동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교사의 생각이나 지원 방식의 변화

꽃송이쌤: 글빛나래 활동 전에는 문해력을 주로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통해 문해력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수 이해력, 정보 이해력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돌아해보니 우리 반에서도 이미 문해력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활동을 계획할 때도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문해 경험을 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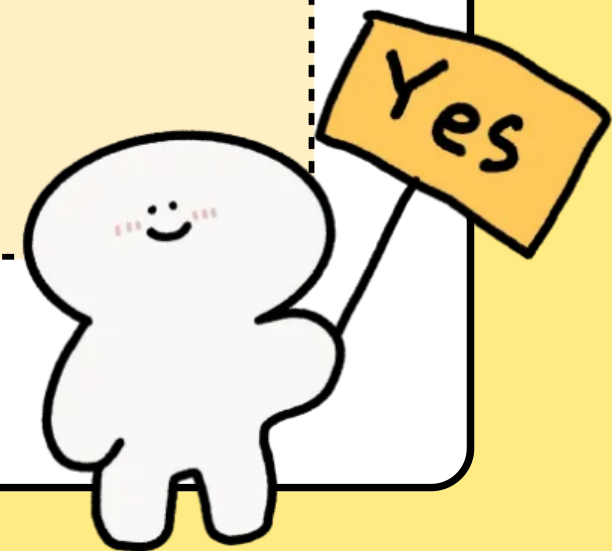


교사의 생각이나 지원 방식의 변화

**예쏘쌤: '글빛나래'를 통해 유아의 글자 숙달 너머에 있는
문해력의 내적 동기와 관심사를 민감하게 알아채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아가 삶 속에서 의미 있게 문자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문해력 환경을 한층 더 정교하게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교사의 생각이나 지원 방식의 변화

버들쌤: 예전에는 '문해력 교육'이라고 하면 특별한 활동을 따로 계획해야 할 것 같아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글빛나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질문하고, 놀이하는 모든 경험이 문해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내기보다 유아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해 경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생각이나 지원 방식의 변화

룸룸샘: 유아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하기, 듣기, 그림, 놀이 등의 경험도 중요한 문해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아가 스스로 궁금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문해 경험을 제공하며,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유아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고 확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놀이 및 학습지원을 제공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2. 앞으로 우리 반에서 적용해 보고 싶은 문해력 활동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

**퍼플쌤: 저는 이번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게임이나 놀이, AI를 활용한
문해력 활동을 더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화책을 검색해보고
2학기 때 구매하여 유아의 문식성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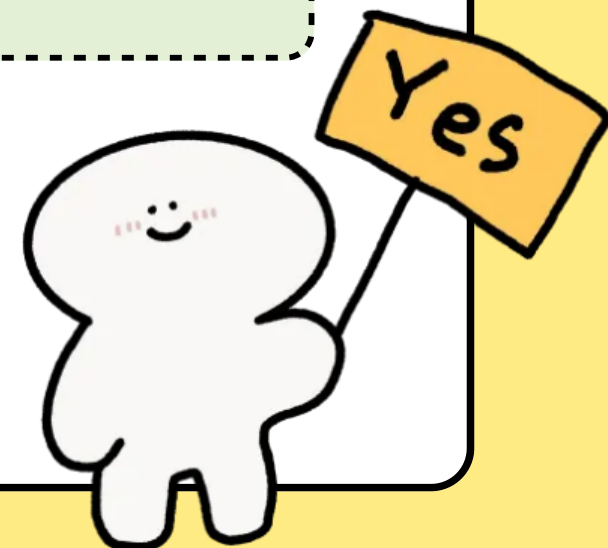
구체적인 실천 계획

꽃송이쌤: 새로운 활동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기보다는 일상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해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해 보거나, 놀이에 필요한 글자와 숫자, 기호, 다양한 정보를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활용해 보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관심과 놀이에서 시작된 문해 경험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자료와 환경을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예소쌤: 유아의 관심과 호기심을 민감하게 포착해 삶과 연결된 문해력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문해력 활동이 정적이라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치며 몰입할 수 있는 다채롭고 동적인 놀이를 실천해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의 다양한 반응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이 공동체원들과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버들샘: 글빛나래 활동에서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다양한 그림책을 교실에서 직접 활용하여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연결하여 놀이, 이야기 나누기, 표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최나야 교수님과의 멘토링에서 배운 내용들도
교실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며,
우리 반 유아들에게 맞는 문해력 지원 방법을 꾸준히 찾아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룸룸샘: 제가 읽어주고 싶을때, 아이들이 관심을 보일때만 불규칙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동료교사들이 하자고 할때만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를 실시하곤 했습니다. 이번 글빛나래 활동을 통해 그림책이 문해력 발달 지원에 적절하고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선생님들이 공유해주신 다양한 그림책 놀이들을 월에 1회씩은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전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소감, 후기

3. 글빛나래 활동을 마치며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전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소감, 후기

**퍼플쌤: 다양한 지역의 선생님들과 유아 문해력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자료도 공유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네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는 선생님들을 보며
저도 많은 자극을 받고 갑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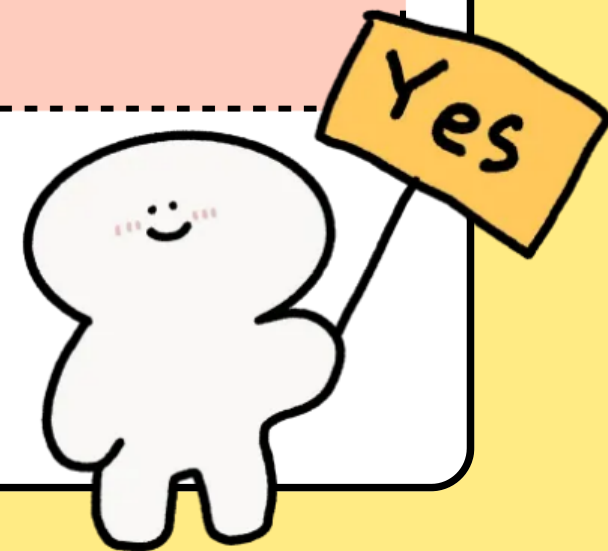
전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소감, 후기

꽃송이쌤: 처음에는 문해력이라는 주제가 어렵고 유치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도 되었지만, 함께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씩 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문해력을 새로운 활동으로 접근하기보다 우리가 평소 하고 있던 교육활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운 내용을 부담스럽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반 아이들의 일상과 놀이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전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소감, 후기

예쑈쌤: 그동안 문해력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여러 영역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접했던 것 같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이 '유아 중심'이듯, 문해력 역시 자칫 교사 주도로
흐르기 쉽지만 놀이 속에서 아이들의 주도성과 배움이 살아나도록 노력해보
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소감, 후기

버들샘: 글빛나래 활동을 통해 가장 깊이 마음에 남은 것은
'유아들에게는 이미 문해력의 씨앗이 있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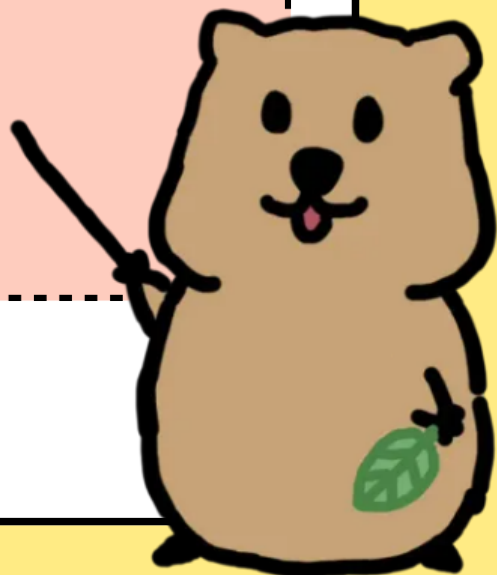
교사가 문해력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움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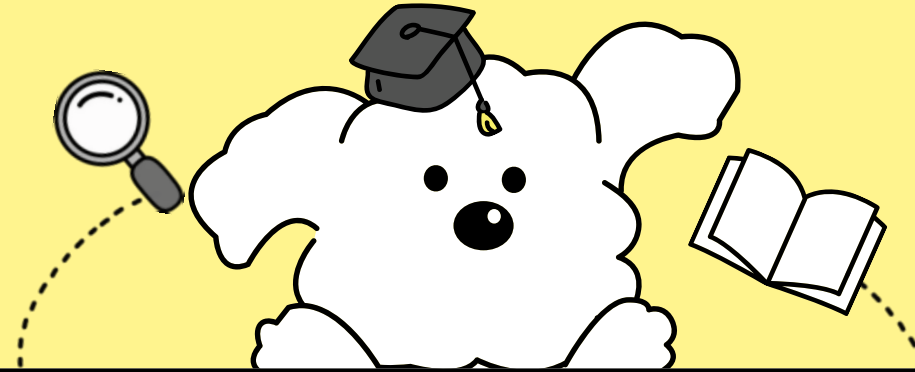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과
흥미를 조금 더 확장해 준다면, 일상 속에서 문해력의 씨앗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소감, 후기

룸룸샘: 올해 3세반이라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만큼
매시간이 재밌고 유익한 활동을 많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해력은 5세수준에 적절한 활동들이 많아
추후 5세반 담임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문해력 교육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빛나라의 다음 걸음

글빛나라는 이론과 현장을 잇고 함께 성장합니다.

교사들이 고민과 사례를 나누며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봅니다.

글빛나라에서 함께한 배움과 실천은 각자의 교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